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너무 덥다

제목 : 꽃 구경

꽃 구경을 갔다. 꽃 중에 희안하고 귀한
꽃을 봤다.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꽃 색
깔이었다. 딸기와 토마토도 있었다. 백설공
주라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비였다. 나는
"오해 백설공주지? 아이비인데."라고 했다.
꽃구경 만 하고 꿀은 몇 개도 안 샀다,
꿀은 딸랑 장미 1바구니 밖에 안 샀다, 흠이
랑 장미만 샀다. 집에 와서 국수를 먹
었다. (비빔국수) 너무 매워서 물을 많이 먹
었다. 영어 학원 온라인을 다 하고 할머니
랑 드라마를 봤다. 책 1권을 읽고 나서 TV
를 봤다. '아빠 어디가?' 프로였다. 코프
로에서 어버이날때 준수와 준수의 형 이랑,
선물을 사러 가서 아빠의 선물은 1개 차전거
자물쇠를 사고 자기것만 많이 사서 웃겼다.
저녁에 마트에서 산 나물로 비빔밥을 만
들었다. 나물 중에 뷔갱이가 있었다. 나는 무
엇인지 모르니까 안 웃었지만 어른들은 웃었다.
나는 맛있어서 밥을 싹 다 먹었다. 밥을 다
먹고 후식으로 참외를 먹었다. 목욕을 하면서
아빠에게 질문을 했다. 알기를 쓰는데 너무 늦게